

\*본 목상집 PDF를 통해 유익을 얻으셨다면 너른 마음으로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B국민은행 098937-04-006221 [예금주 한국루터란아워]

\*본 목상집 PDF를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사순절 필사·묵상집

# 보라 너의 왕을

Behold Your King

카리보



## 저자 카리 보 Kari Vo

카리 보 박사는 루터란아워 미니스트리의 신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영문학(르네상스 시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30년 동안 글쓰기 및 출판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서 표기와 인용은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을 사용했습니다.

## 목차

재의 수요일	01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_____8
	02   뜻밖의 만남_____10
	03   특별한 동행_____12
	04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_____14
사순절 첫째 주일	05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_____18
	06   개별적인 관계_____20
	07   그의 말을 들어라_____22
	08   서둘러 향하신 그 길_____24
	09   호산나!_____26
	10   그로 말미암아_____28
사순절 둘째 주일	11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_____30
	12   죽음의 시간_____34
	13   준비_____36
	14   발을 씻기심_____38
	15   등 뒤의 배신자_____40
	16   희망과 사랑_____42
	17   껌데기와 알맹이_____44
	18   지키시는 능력_____46
사순절 셋째 주일	19   작지만 위대한 기적_____50
	20   긍휼의 시선_____52
	21   수치를 덮는 옷_____54
	22   침묵을 깨는 진실_____56
	23   넘어져도, 다시 용서받은_____58
	24   우리 모두를 위하여_____60

사순절 넷째 주일

25   뒤틀린 세상, 바로잡는 사랑_____	62
26   오직 이 목적을 위하여_____	66
27   “보시오, 이 사람이오”_____	68
28   진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_____	70
29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_____	72
30   보여주기, 진짜 현실_____	74
31   주님의 인내_____	76
32   대신 깊어진 십자가_____	78

사순절 다섯째 주일

33   예수님의 마음_____	82
34   돌보시는 분_____	84
35   진정한 왕의 보좌_____	86
36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_____	88
37   능력인가, 약함인가?_____	90
38   마지막 배려_____	92
39   끝내 닿는 손길_____	94

종려 주일

40   마침내 드러난 진실_____	98
41   어둠_____	100
42   신 포도주_____	102
43   다 이루었다_____	104
44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_____	106
45   사랑 이야기 성금요일_____	108

부활 주일

46   사랑의 선물_____	110
47   나의 전부_____	114
48   세상 밖으로_____	116



재의 수요일

## 01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sup>1</sup>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sup>14</sup>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 1:1, 14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뵈고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 수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갈망이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몸소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알아가듯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과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 말씀과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특히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Date. . .

---

<sup>1</sup>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sup>14</sup>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  
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  
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

요 1:1, 14

---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오늘 내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 02 | 뜻밖의 만남

<sup>29</sup>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 1:29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37절 사이에는 참 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군중 속에서 며칠째 머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 그저 사람들 사이를 걸거나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알아봅니다. 요한은 그분을 가리키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날 보았던 일을 간절하게 증언하죠. 이 증언으로 요한은 아끼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게 되었지만, 도리어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역의 임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넘어갔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씻어주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Date. . .

---

<sup>29</sup>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

요 1:29

---

---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틈에 섞여 계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던 적은 언제인가요?

### 03 | 특별한 동행

<sup>12</sup>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sup>13</sup>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막 1:12-13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가봅시다. 그곳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장면이 그려지나요?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와 있네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선한 천사들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행들은 다양합니다.

하나님부터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명체가 다 모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몸소 감행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네 필요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시험해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아라!”라는 유혹을 견디셨죠.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유혹을 겪으셨죠. 무한히 사랑했던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광야의 ‘유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곤경에 처해 주님이 필요할 때,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12</sup>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sup>13</sup>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막 1:12-13

---

---

천사가 아닌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어떤 울림이 생기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현재 나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오나요?

## 04 |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sup>4</sup>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눅 5:4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을 때 베드로는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고기 떼 속에서 정신이 없었을 게 분명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현지 상황도 잘 모르면서 훈수 두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뜨입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사실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와 단점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시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소서. 아멘.

Date. . .

---

<sup>4</sup>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눅 5:4

---

---

예수님이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나는 오늘 어떤 대답을 들려드리고 싶나요?



사순절 첫째 주간

## 05 |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sup>1</sup>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sup>3</sup>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sup>5</sup>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요 2:1상, 3-7상

아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 돌아왔지만, 마리아는 따지거나 되물지 않습니다. 그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예수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공생애의 첫 기적을 행하시죠. 그 덕분에 잔치 분위기가 살아났고, 주인 노릇을 하던 신랑의 체면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도 신뢰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들에 대해 무엇을 알았기에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이 다정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줄기차게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을 움직이게 할 것이며, 그분만의 놀라운 방식으로 반드시 길을 찾으리란 것을 마리아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로까지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Date. . .

---

<sup>1</sup>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sup>3</sup>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sup>5</sup>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

요 2:1상, 3-7상

---

잔치가 끝난 뒤 마리아와 예수님은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지금 나의 고민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분께 가만히 여쭙보는 건 어떨까요?

## 06 | 개별적인 관계

<sup>18</sup>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sup>20</sup>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니다.” 눅 9:18상, 20

예수님의 가장 사적인 삶의 영역에 초대받은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는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전합니다. 당시에는 대개 소리 내어 기도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와 깊은 고민을 속속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초대받은 것과 같았을 테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명이 그분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곁에서 그 기도를 듣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18</sup>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sup>20</sup>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니다.” 눅 9:18상, 20

---

---

---

주로 기도를 혼자 하나요, 함께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요 17:20-26)

## 07 | 그의 말을 들어라

<sup>29</sup>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sup>30</sup>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와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sup>35</sup>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눅 9:29-30, 35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한 시점은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어떻게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잡아 산 위에 더 머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잠깐 맛본 뒤 곧장 고단한 집안일과 업무 그리고 숨 가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죠. 때로는 그보다 더 힘든 갈보리 언덕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병마와 싸우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또는 무너진 관계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눈부셨던 영광의 순간이 마치 먼지 쌓인 옛 기억쯤으로만 여겨질 때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친히 겪으셨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고된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이 저를 덮쳐올 때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29</sup>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sup>30</sup>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와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sup>35</sup>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눅 9:29-30, 35

---

---

나는 ‘영광의 순간’을 언제 체험했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 08 | 서둘러 향하신 그 길

<sup>32</sup>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 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

막 10:32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미 연거푸 말씀하셨으니(막 8:31, 9:31), 저라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곳을 향해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제 발로 사지로 뛰어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을 세레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눅 12:50)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배반하러 떠나는 유다에게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27)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서두름은 단순한 회피나 체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에서 비롯된 능동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만이 참된 자유와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그 험한 길을 서둘러 가실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sup>32</sup>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 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

막 10:32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서둘러 가실 만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나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 09 | 호산나!

<sup>16</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 21:16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불만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일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아이들의 외침만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 답하셨습니다. 주님에 따르면, 아이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것이며, 그들의 불평과 분노야말로 외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외침에 응답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포함한 모든 대적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부활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16</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 21:16

---

---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 10 | 그로 말미암아

<sup>5</sup>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sup>6</sup>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르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요 11:5-6

본문 6절을 헬라어 문맥에 따라 읽어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더 머무르셨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로 말미암아’ 머문다는 선택은,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나 외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진작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족은 마지막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음을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상처와 혼란의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되살려 그들의 신뢰가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방식을 가능할 수 없을 때조차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5</sup>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

<sup>6</sup>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요 11:5-6

---

---

기도 응답이 늦어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 나머지 더 큰 영광을 위해 잠시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꺼이 참고 기다릴 건가요?

## 11 |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sup>1</sup>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sup>3</sup> 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요 12:1,3

순전한 나드 향을 맡아본 적 있나요? 그 향은 워낙 진하고 여운이 깊어서, 며칠이 지나도 살결마다 그 향기가 배어있곤 합니다. 그러니 그 향기로 온 집안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리아의 머리카락에도, 예수님의 발에도 그 향기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까지도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마리아는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선물’을 드린 셈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길은 사랑하는 이들이 대신할 수 없었죠. 오직 주님만이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고독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와 수치의 짐을 홀로 짊어지신 주님을 도울 수 없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과 유혹 속에서 싸우시는 주님을 붙잡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혼자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우리에게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옵소서. 아멘.

Date. . .

---

<sup>1</sup>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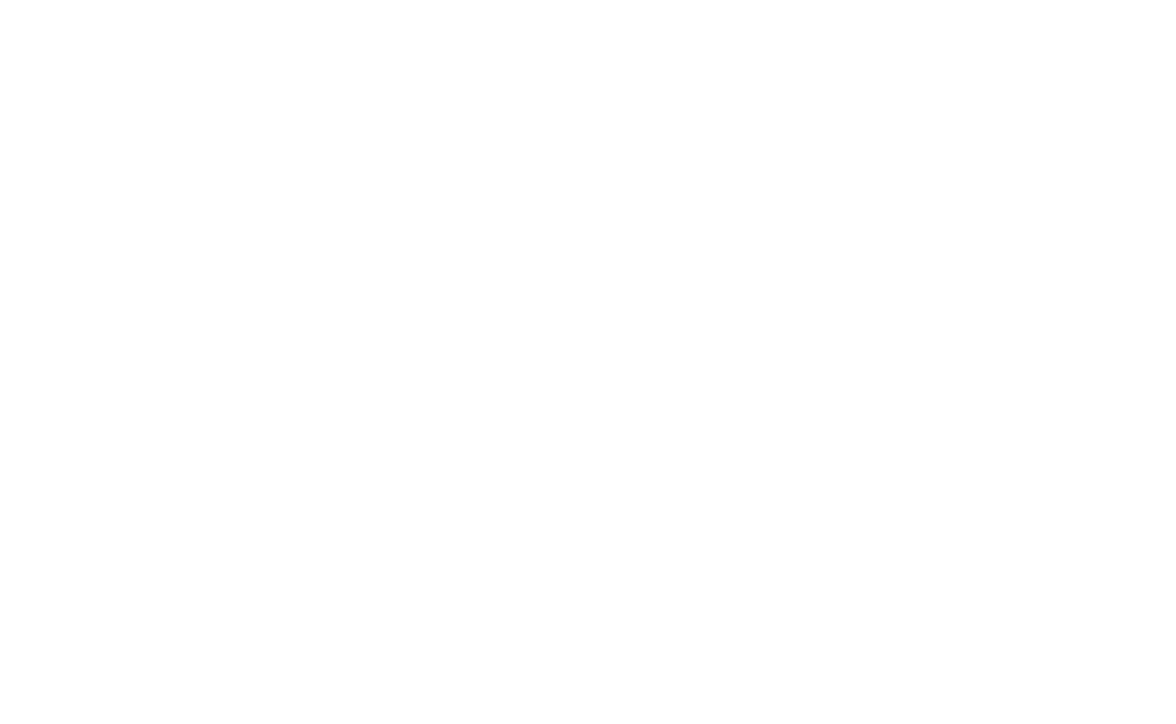
<sup>3</sup> 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요 12:1,3

---

---

고난의 길을 홀로 견고 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이미 그 길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어떤 위로를 받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마 28:20)을 기억하며, 지금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은 무엇인가요?



사순절 둘째 주간

## 12 | 죽음의 시간

<sup>20</sup>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sup>21</sup> 그들은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인 빌립에게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뵈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sup>23</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 12:20-21, 23

자신을 만나러 온 이방인들을 마주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낯설기까지 합니다. 반갑게 맞이하시는 대신 주님은 죽음에 대한 깊고 고통스러운 명상에 잠기시더니 이내 몸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장차 세워질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제 곧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죠.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찾는 현상이 오히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묵직한 예고로 다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뻐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 덕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을 구원하는 대신 저를 구원하는 길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20</sup>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sup>21</sup> 그들은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인 빌립에게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sup>23</sup> 예  
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  
다.” 요 12:20-21, 23

---

---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결단에서 어떤 사랑이 느껴지나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신 ‘자기 자신’의 안위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13 | 준비

<sup>10</sup>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한 남성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sup>11</sup>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눅 22:10-11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두신 듯합니다. 당시에 여성이 아닌 남성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건 드문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건 미리 약속된 신호였을 것입니다. 집주인 역시 ‘선생님’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보고 다락방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오붓하게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비시키기 위함이었죠. 제자들이 분주히 음식을 마련하며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주님은 거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제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고자 흠 없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었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영원한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Date. . .

---

<sup>10</sup>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한 남성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sup>11</sup>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눅 22:10-11

---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요 14:1-6)은 오늘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나요?

주님이 직접 나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에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가 느껴지나요?

## 14 | 발을 씻기심

<sup>14</sup>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 13:14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더러 서로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씻김’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단 한 번의 목욕은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발 씻김은 과연 무엇 일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이 베푸시는 끊임없는 용서이겠죠. 우리를 씻기시며 주님은 세례 때 선사하셨던 그 온전하고 거룩한 정결함으로 날마다 되돌려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형제자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14</sup>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 13:14

---

---

---

매일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용서하시는) 은혜를 언제 가장 깊이 경험하시나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힘들 때, 나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손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 15 | 등 뒤의 배신자

<sup>25</sup>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sup>26</sup>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에게 주셨다. 요 13:25-26

당시 유대인들의 정식 식사 자리는 오늘날처럼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상 주위에 왼쪽 팔꿈치를 괴고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자세로 줄지어 누우면, 내 뒤편에 누운 사람의 가슴이 나의 등 쪽을 향하게 됩니다.

성경이 요한을 두고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묘사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앞쪽에서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남모르게 빵 조각을 건네실 수 있었다는 건, 유다도 예수님의 뒤편에서 주님의 등과 가슴을 맞대고 누워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내내 사랑하는 요한의 온기를 가슴으로 느끼시는 동시에,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거친 심장 박동을 등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배신자를 등에 업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셈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서늘한 배신의 기운을 느끼면서도 유다를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한 손님에게 빵 조각을 건네듯 어둠 속으로 걸어가려는 그를 빛으로 불러 세우는 마지막 사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돌아설 때도 주님은 그 아픈 심장 박동을 온몸으로 견뎌내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십자가의 고통을 택하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제 마음이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25</sup>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sup>26</sup>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에게 주셨다. 요 13:25-26

---

---

유다는 주님의 등 뒤에서 빵 조각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신의 품으로 감싸십니다. 주님께 오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나요?

## 16 | 희망과 사랑

<sup>36</sup>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막 14:36

때로는 희망이 가장 쓰라린 고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제자들에게 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분의 선포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죠.

하지만 생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린 예수님께서서는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통에 직면하셨죠.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길을 찾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수년 동안 묵묵히 받아들인 그 처참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번민이 주님을 덮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실낱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아버지께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잃고자 자신의 죽음마저 각오하십니다.

한줄기 자그마한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잠든 제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셨고,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희망마저 내려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Date. . .

---

<sup>36</sup>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막 14:36

---

고통스러운 순간, ‘혹시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외려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적이 있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탈출구마저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 17 | 꺾데기와 알맹이

<sup>49</sup>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다. <sup>50</sup>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마 26:49-50상

보름달이 떴음에도 갯세마네의 나무 아래는 짙은 어둠에 덮여있었겠죠. 졸음에 겨워 허둥대는 제자들 사이에서 기도로 준비를 마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다가오는 무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윽고 어두운 나무 사이로 햇불의 불빛이 일렁이고,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들이닥쳤죠. 그 선두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께 다가가 입 맞추며 인사합니다.

유다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산을 했던 걸까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예수님이 달아나라라 지레짐작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특별한 신호’가 필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유다는 사랑의 꺾데기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알맹이를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체포와 고난, 죽음 그리고 사할 만의 부활이라는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49</sup>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다. <sup>50</sup>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마 26:49-50상

---

---

**예수님께 유다는 왜 하필 ‘입맞춤’을 했을까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 18 | 지키시는 능력

<sup>8</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sup>9</sup>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 18:8-9

그 자리에 있던 경비병들은 이런 죄수를 만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그니라”라는 짧은 한마디로 군사들을 뒤로 넘어뜨릴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진 분 말이죠. “내가 그니라 (IAM)”는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거룩한 이름입니다(출애굽기 3:14).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체포 과정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오늘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8</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sup>9</sup>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 18:8-9

---

---

모든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왜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제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하셨을까요?

체포되는 순간에도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사순절 셋째 주간

## 19 | 작지만 위대한 기적

<sup>10</sup>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sup>11</sup> 그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요 18:10-11

고난과 죽음의 길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베푼 마지막 기적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원수를 향해 기꺼이 손을 뻗으셨고, 그의 잘려나간 귀를 고쳐주셨죠(누가복음 22:49-51 참고). 요한복음이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은, 훗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초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귀가 온전해졌으니,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 죄를 묻기가 어려워졌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잊고 사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과 죽음의 잔을 끝까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sup>10</sup>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sup>11</sup> 그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요 18:10-11

원수의 귀를 고치신 이 기적은, 우리가 ‘원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쳐주나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칼’은 무엇인가요?

<sup>55</sup>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sup>56</sup>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 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 26:55-56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제자들의 귀에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 지적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천군천사를 불러 자신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체포를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한마디 항변을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조차 물리쳐야 할 원수가 아니라, 곧 목숨을 바쳐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진실을 들려주셨죠. 어쩌면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남아 훗날 자신을 만났을 때 믿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조차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

<sup>55</sup>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sup>56</sup>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 26:55-56

---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나요?

## 21 | 수치를 덮는 옷

<sup>51</sup>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sup>52</sup> 그는 흠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막 14:51-52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전통에 따르면 훗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아마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집안의 아들로서, 호기심에 잠자리에 들려다 말고 예수님 일행을 몰래 따라나섰을 것입니다. 급한 나머지 흠이불만 대충 걸친 채 말이죠.

그 청년은 예상보다 더 큰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리라곤 예상치 못했던 데다가 자신에게까지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몸을 감싸던 흠이불마저 팽개친 채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치심을 무릅쓰고 겨우 목숨만 구한 셈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붙잡히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고난의 자리를 대신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홀로 짊어지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용서와 자비의 흰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51</sup>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sup>52</sup> 그는 흠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막 14:51-52

---

---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느꼈던 '수치심'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의 흰옷'으로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 22 | 침묵을 깨는 진실

<sup>63</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sup>64</sup>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यो.” 마 26:63-64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적들은 당황했죠. 거짓 증인들이 서로 엇갈린 증언을 해서 그들의 기소는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도록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라는 사실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눈앞에 서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 재판을 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

<sup>63</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

<sup>64</sup>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마 26:63-64

---

거짓 증언 앞에서도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진실을 굳이 대답하셨을까요?

세상은 주님께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 판결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 23 | 넘어져도, 다시 용서받은

<sup>61</sup>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sup>62</sup>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눅 22:61-62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해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 집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 그와 똑같은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맹세했어도 막상 적들이 닥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주님을 따르려 했으나 이미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둔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호기롭던 그의 다짐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분명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사랑’이 더 컸습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구원자의 사랑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셨고, 그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실망시켰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61</sup>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sup>62</sup>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눅 22:61-62

---

---

---

주님을 위해 죽겠다던 베드로가 왜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 용서받은 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님의 용서가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용기를 주는지 묵상해 봅시다.

<sup>1</sup>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막 15:1

아침이 밝자 예수님은 묶인 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방인 통치자의 손을 빌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주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가 사형 선고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나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분을 배반했고, 세상의 권력은 무죄인 그분을 죽게 내버려 두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모두의 것이듯, 주님의 자비와 용서 또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을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1</sup>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막 15:1

---

---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5:12와 요한복음 10:16을 묵상해 보세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을 ‘한 무리’로 품으시는 주님의 계획은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 25 | 뒤틀린 세상, 바로잡는 사랑

<sup>7</sup> 빌라도가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sup>11</sup>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sup>12</sup>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눅 23:7, 11-12

오늘 본문에는 정의가 완전히 일그러진 참담한 풍경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그를 방면했을 때 닥칠 뒷감당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마침 자기 관할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김’으로써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헤롯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오가는 재판을 그저 신기한 볼거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그는 곧바로 주님을 조롱하며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무고한 생명을 두고 책임을 미루고 비웃는 사이, 악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의는 무너지고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비겁한 결탁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리저리 떠넘겨지며 조롱당하셨지만, 그 덕분에 정죄 받아야 할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주님은 심판받아야 할 우리 자리에 사랑으로 대신 서셨고, 죽음을 통해 용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그 승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려 비겁한 세상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7</sup> 빌라도가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

<sup>11</sup>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

<sup>12</sup>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눅 23:7, 11-12

---

자신의 안위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님을 구경거리로 여겼던 이들의 모습에서, 비겁하게 굴던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오르진 않나요?

예수님이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은, 심판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어떻게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사순절 넷째 주간

## 26 | 오직 이 목적을 위하여

<sup>37</sup>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sup>38</sup>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요 18:37-38

고난의 여정 속에서 대부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은 더욱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심판할 빌라도 앞에서 평소보다 훨씬 길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밝히셨듯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빌라도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실 만큼 그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빌라도를 향한 이 절박한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나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그분께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사랑하시며, 바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저 또한 기쁨으로 주님에게 속하겠습니다. 아멘.

Date. . .

---

<sup>37</sup>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sup>38</sup>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요 18:37-38

---

---

자신을 심판할 사람마저 끝까지 품고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적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확신과 소망을 주나요?

## 27 | “보시오, 이 사람시오”

<sup>5</sup>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 19:5

빌라도는 성난 군중 앞에서 외쳤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가시관 아래로 피가 흐르며, 온몸의 멍 자국과 같은 색깔인 자색 옷을 걸친 채 간신히 서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이분을 왕으로 영접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죄를 씻는 용서,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 그리고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약속하셨죠.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은, 이제 우리를 곁에 두시고 그분의 생명과 기쁨을 영원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것으로 영원히 붙들어 주소서. 아멘.

Date. . .

---

<sup>5</sup>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

요 19:5

---

---

비참하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 그분과 영원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 28 | 진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sup>10</sup>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sup>11</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내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요 19:10-11

이 재판의 주도권은 이미 빌라도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의 압박에 휘둘리죠. 도리어 피고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 재판관처럼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빌라도의 권한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하시며,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빌라도가 사실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가롯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무죄한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었기에,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10</sup>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sup>11</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내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

요 19:10-11

---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위에서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며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갓 태어난 순결한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이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평안을 주나요?

## 29 |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

<sup>15</sup> 그들은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sup>16</sup>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요 19:15-16

참으로 소름 끼치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자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마주한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와 왕으로 모시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죠. 그들은 가이사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가이사는 적어도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지는 않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년 뒤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오판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똑같은 선택 앞에서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부유한 사람들 또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무기 같은 세상의 권세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15</sup> 그들은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sup>16</sup>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요 19:15-16

---

---

세상의 권력자들은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sup>24</sup>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sup>25</sup>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마 27:24-25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입니다. 곧 일어날 끔찍한 일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선 굿기죠. 물론 명백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빌라도뿐이었으니까요.

군중 또한 무책임한 허세를 부리며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게를 갖는지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눈앞의 상황을 자기들 뜻대로 몰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에 따른 심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에 대해 그 누구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걸음마다 괴로움을 감내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진짜 현실’로 겪어내셨죠. 자신이 하시는 이 일이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을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의 권세로부터 구해내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와 수치로 죽어 있던 우리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현실’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24</sup>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sup>25</sup>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

마 27:24-25

---

사람들이 내뱉은 저주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나요?

이 보혈의 은혜가 오늘의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 31 | 주님의 인내

<sup>27</sup> 그 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sup>28</sup>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sup>29</sup>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하였다.

마 27:27-29

그곳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600명의 군인이 예수님을 한껏 괴롭히도록 방치되었죠. 십자가 형틀에 세울 수 있을 만큼만 살려두면 된다는 무언의 허용 속에 온갖 학대가 쏟아졌습니다. 조롱과 매질, 머리를 짓누르는 가시관과 모욕적인 침 뱀음까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날것 그대로 터져 나왔지만, 그 광기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이 상황을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 이 고통을 끝낼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53 참고)

하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부당하게 고통받고 악에 짓눌린 모든 이들을 생각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악의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조차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구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빛어 내기 위해 그 모든 수치를 기꺼이 견뎌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그 모진 시간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

<sup>27</sup> 그 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sup>28</sup>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sup>29</sup>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하였다.

---

마 27:27-29

---

살면서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적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소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 32 | 대신 짊어진 십자가

<sup>26</sup>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눅 23:26

예수님은 이미 만신창이였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고, 목요일 유월절 식사 이후로는 물 한 모금 마셨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저 쉴 새 없이 매 맞고 조롱당하며, 죽음에 이를 만큼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이미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짊어지셔야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길 위에서 숨을 거둔다면 군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았습니다.

시몬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끔찍했을까요?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가 흉악범이나 지는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는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날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무엇을 짊어지셨는지를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훗날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초대 교회에 알려졌으니까요. 그는 곧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죄와 죄책감, 수치라는 거대한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님은 그 모든 짐을 지고 죽음의 끝까지 들어가셔서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대신 짊어져 주신 그 무거운 짐들에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26</sup>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눅 23:26

---

---

역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은 훗날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혹시 나도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 결국 큰 은혜가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신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순절 다섯째 주간

### 33 | 예수님의 마음

<sup>28</sup>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눅 23:28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보시고는 외려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셨죠. 자신이 죽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함락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전과 기근, 고문과 포화가 3년 동안 벌어질 터였죠. 무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치려는 자들이 여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지침을 이미 남겨 주셨습니다(누가복음 21:20-24). 그러나 눈앞에서 우는 여인들을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의 무게를 온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악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죠. 사흘 만에 되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늘 저희를 마음 깊이 살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28</sup>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눅 23:28

---

---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유독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분을 위해 오늘 무엇을 돕거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sup>33</sup>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sup>34</sup>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마 27:33-34

쓸개를 탄 포도주는 고통을 무디게 하여 처형 과정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고난을 온전히 겪어내고자 하셨기에 사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악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중이셨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조금의 차질도 생기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큰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수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계셨죠.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제자들, 죽기 전 마지막 믿음의 기회를 얻은 양옆의 죄수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까지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의 고통보다 저의 필요를 늘 먼저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Date. . .

---

<sup>33</sup>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sup>34</sup>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마 27:33-34

---

---

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돌봐주었던 적이 있나요? 그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 35 | 진정한 왕의 보좌

<sup>32</sup>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갔다.

<sup>33</sup>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눅 23:32-33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의 양옆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던 그들은, 마치 왕의 즉위 장면을 흉내 내듯 그 상황을 꾸며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신하를 배치한 것처럼 연출한 것이지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처럼, 왕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무언가를 간청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잔인한 짓거리였죠. 로마 군인들의 유대인 혐오가 섞인 비열한 비웃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들이 만든 그 자리가 사실은 진정한 보좌였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로서 통치하시는 진짜 왕의 집무실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좌 삼아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도둑들이 신하처럼 곁에서 있죠. 손에는 왕의 지팡이 대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예복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우리 죄와 수치를 덮고,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te. . .

---

<sup>32</sup>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갔다.

---

<sup>33</sup>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눅 23:32-33

---

---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해보세요.

왕의 보좌 앞에 선 백성처럼, 나는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나요?

## 36 |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

<sup>34</sup>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sup>35</sup>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눅 23:34하-35상

보통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의 유산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재산은 단순했습니다. 입으셨던 겹옷과 속옷, 허리띠, 샌들, 그리고 머리에 썼을지 모를 수건 정도였죠.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뽑기하며 도박을 벌이던 로마 군인들이 바로 그 유산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줄 또 다른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그 유언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남기셨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책감은 영원히 씻겨 나갔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남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자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악이 우리 삶에 끼친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부활한 예수님은 영생의 선물을 기꺼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 귀한 선물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34</sup>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sup>35</sup>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눅 23:34하-35상

---

---

---

예수님은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을 다시 거두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유산 중 지금 내게 가장 귀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 37 | 능력인가, 약함인가?

<sup>39</sup>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sup>40</sup>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마 27:39-40

십자가에서 내려가 조롱하던 그들을 단번에 믿게 만들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내내 이런 유혹에 맞닥뜨리셨죠.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 ‘능력’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싶을 때, 세속의 승리와 기적을 약속하며 수많은 군중을 모으고 싶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란 마지막 유혹의 시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휘둘러 자신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따르며 다시 살려주실 아버지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기적만을 바라며 간절히 매달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린도후서 12:9).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기적 대신 고단한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39</sup>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

<sup>40</sup>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마 27:39-40

---

---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혹 간절한 기도에도 ‘아니오’라고 답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sup>26</sup>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sup>27</sup>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요 19:26-27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이들을 향한 마지막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파고든 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분의 길을 외면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셨습니다. 요한 역시 스승을 잃은 슬픔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죠. 고난의 현장에서 서로서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이 나누는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되게해주세요. 아멘.

Date. . .

---

<sup>26</sup>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sup>27</sup>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요 19:26-27

---

---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믿음의 공동체(성도)’가 있나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 적이 있나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 나눠봅시다.**

## 39 | 끝내 닿는 손길

<sup>41</sup>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sup>42</sup>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눅 23:41-42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자유롭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때 심긴 믿음의 씨앗이 죽음 직전에야 꽃을 피운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내 주변에는 여전히 깨어지고 길을 잃은 채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곁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손길은 반드시 닿습니다. 주님이 미치지 못할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당신의 손이 닿는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을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낙원에 들어선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마지막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생명이 그에게 닿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Date. . .

---

<sup>41</sup>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sup>42</sup>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눅 23:41-42

---

---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있나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들을 이끄시도록 잠시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주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곳은 없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종려 주간

<sup>36</sup>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다가 폈다. <sup>37</sup>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sup>38</sup>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눅 19:36, 37하-38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이 될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도시를 찾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때는 하나님께 드러지기 위해 성전에 오셨고, 소년 시절에는 놀라운 지혜로 율법 교사들을 감탄시키셨으며, 때로는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며 그곳을 성결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이전의 모든 걸음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죽음을 맞이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왕이자 구세주로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마음껏 외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외쳤죠.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제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모든 이에게 진실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믿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부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부조차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부활하시고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36</sup>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다가 폈다. <sup>37</sup>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sup>38</sup>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눅 19:36, 37하-38

---

---

예수님은 왜 이전과 달리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왕)를 큰소리로 외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화려한 군마 대신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 그분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왕이 되어주시나요?

<sup>46</sup>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마 27:46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중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옆친 데 댈친 격으로 고난이 겹쳐 이제 정말 한 걸음도 더 떼지 못하겠다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르며 매달릴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잘 아십니다. 그분 역시 그 어둠을 몸소 통과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늘 곁에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막막했던 그 기분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생생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고, 시편 22편의 고백을 빌려 그 고통을 쏟아내셨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아픔을 토해내며 울부짖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니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끝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어둠 속에서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고 제 곁에 머물러 주소서. 아멘.

Date. . .

---

<sup>46</sup>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마 27:46

---

---

예수님은 왜 평소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시편의 고백을 빌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누가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주었나요?

<sup>28</sup>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sup>29</sup>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히솅 풀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sup>30</sup>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요 19:28-30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인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맨정신으로 온전히 감내하려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신 포도주’는 기꺼이 받으십니다.

이 신 포도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합니다. 시편 69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비웃기 위한 조롱의 잔이었을 수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마시던 값싼 음료인 ‘포스카’를 나누어 준 작은 호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던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받으셨습니다. 타들어 가는 목을 축인 뒤 인류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마지막 승리의 선언인 “다 이루었다!”를 온 세상에 분명하게 외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며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물결처럼 이 세상 속으로 세차게 밀려들어 왔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과 죄악이 뒤엉킨 그 참혹한 현장의 한복판을 뚫고, 찬란한 빛줄기가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그 빛은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출 것이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

<sup>28</sup>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sup>29</sup>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히속 풀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sup>30</sup>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요 19:28-30상

---

당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sup>30</sup>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요 19:30

우리는 이 짧은 외침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선명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끝이 보이지 않던 모진 고통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는 안도의 고백이었을까요?

물론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십자가의 참혹한 시간을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단순히 고통이 멈춘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스며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땅에서 보내신 자신의 온 생애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낮고 천한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긴 세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가르치며 사랑을 쏟으셨던 공생애의 모든 걸음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해매던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길러내신 그 모든 수고 역시 이제 다 이뤄졌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이 순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를 거쳐 오랜 세월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결실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기 전까지 주님은 잠시 안식에 드실 것입니다. 그 짧은 쉼 뒤에는 온 세상을 주님 품으로 불러모으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계속되겠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te. . .

---

<sup>30</sup>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요 19:30

---

---

---

나의 삶에서 오랫동안 마음 써온 일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처럼,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완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sup>26</sup>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sup>27</sup>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sup>28</sup>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 26:26-29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우리에게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당신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 우리는 몸과 오감에 와닿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이것은 실제란다. 너는 이것을 손수 만지고 느낄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성찬과 세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의 ‘떡’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섭취한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까지 돌보시며,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

<sup>26</sup>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sup>27</sup>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sup>28</sup>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 26:26-29

---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당신에게 주는 특별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이토록 가깝게 몸 안으로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sup>45</sup>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sup>46</sup>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눅 23:45-46

성금요일은 ‘하나님이 죽으신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만드셨고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날이죠. 예수님은 우연히 붙잡혀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죽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 하나를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주님이 절실히 필요했으니까요.

그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려갔던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삶을, 이 세상을, 영혼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고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집에 데려가고 싶으셨으니까요. 주님의 나라에서 아픔 없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자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극진하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를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아멘.

Date. . .

---

<sup>45</sup>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sup>46</sup>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눅 23:45-46

---

---

---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탓하거나 원망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실까요?

<sup>38</sup>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sup>39</sup>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sup>40</sup>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 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요 19:38상-40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신의 육신을 돌보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죽음을 맞이하신 건 분명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과, “그의 몸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마음 깊이 품으신 채 말입니다. (시 16:10, 사 53:9 참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동안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숨어서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차갑게 식은 주님의 몸을 향유와 세마포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슬픔 속에 무덤 문을 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죽음을 뚫고 일어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주님은 영원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죠.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용기를 내게 하소서. 슬픔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38</sup>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sup>39</sup>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sup>40</sup>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 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요 19:38상-40

---

---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본 적이 있나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활 주간

<sup>11</sup>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sup>13</sup>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20:11상, 13

부활의 아침,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소중한 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린 뒤, 다시 빈 무덤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면에서 마리아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 앞에 눈부신 두 천사가 나타나지만, 마리아는 무덤덤합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묻자 그녀는 정중히 대답하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버립니다. 마치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다면, 눈 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기적조차 그녀에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곧장 주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던지 예수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렴” 하고 말씀하셔야 할 정도였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한 겉모습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죠. 되살아나신 그 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나섭니다. 그 무엇보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니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곁에 살아가셔서 정말 기쁩니다.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아멘.

Date. . .

---

<sup>11</sup>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sup>13</sup>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20:11상, 13

---

---

---

천사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간절히 찾던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나요? 그런 적이 언제였나요?

예수님은 왜 당대의 권력자나 유명한 이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sup>21</sup>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요 20:21

제자들이 있던 그 방을 상상해보세요. 어스름한 저녁,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들었고, 모든 상황이 점점 조여오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방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며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죠. 주님은 숨을 깊게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죄 사함의 기쁨 소식을 전할 드넓은 세상 밖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삶도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지 못할 장소나 시간은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죠. 주님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귀한 일들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갇힌 저를 찾아와 주소서. 당신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Date. . .

---

<sup>21</sup>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요 20:21

---

---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는 보통 어디에서 도움을 찾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거나 위로를 전했던 적이 있나요?

## 필사·묵상집 후기를 남겨주세요

사순절 필사·묵상집 <보라 너의 왕을>과 함께 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 루터란아워 뉴스레터로 전하는 소식

- 대림절&사순절 묵상집 외 기독교 책자 출간 소식
- 한달에 한 번씩 무료로 열리는 정오음악회 클래식 콘서트 소식
  - 장소 : 후암동 중앙루터교회 본당
- 어린이 성경 공부 강좌 소식
- 다양한 책모임과 이벤트 및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소식
- 절기에 따른 성경구절 묵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피드)

### 1. 뉴스레터 구독 및 후원 신청 링크

[linktr.ee/lutheranhour](http://linktr.ee/lutheranhour)

### 2. 루터란아워 홈페이지에서 소책자를 pdf로 다운받으세요!

[korealutheranhour.org/pdf](http://korealutheranhour.org/pdf)



한국루터란아워 사순절 필사·묵상집  
보라 너의 왕을 (Behold Your King)

발행일 2026. 2. 13  
지은이 카리 보  
옮긴이 김선영  
감 수 최태성  
편 집 김선영  
디자인 김예슬  
펴낸이 김태훈

발행처 한국루터란아워  
전 화 02-318-3346  
주 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2길 21-11 2층  
이메일 lhm\_korea@naver.com

ISBN 9788991426474

Copyright 2026. Lutheran Hour Ministries.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보라 너의 왕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짚어진 ‘낮은 자의 왕’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고독과 외면 속에서도 그분은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 묵상집 PDF를 통해 유익을 얻으셨다면 너른 마음으로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B국민은행 098937-04-006221 [예금주 한국루터란아워]

\*본 묵상집 PDF를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